東亞日報
夕刊 二月十七日(月)

新嘉坡、香港方面의 英極東軍備擴充

廣東政府와 利權交涉開始

日本關係方面重大視

【東京電話通信】英國은 伊國軍需品의 成功에 여러가지 意見을 有하는 反面 未曾有의 國防强化計劃에 依하는 情報에 依하면 英國은 新嘉坡、香港等極東方面의 軍備擴充을 計劃하게된것은 如左 太平洋方面에는 現在 中心勢力 이였고 中國은 赤化運動의 中心根據地라는데이다 이라하야 英國은 香港을 中心으로 廣東政府와 利權交涉을 開始하려는 形勢가 보이므로 日本關係方面에서는 重大視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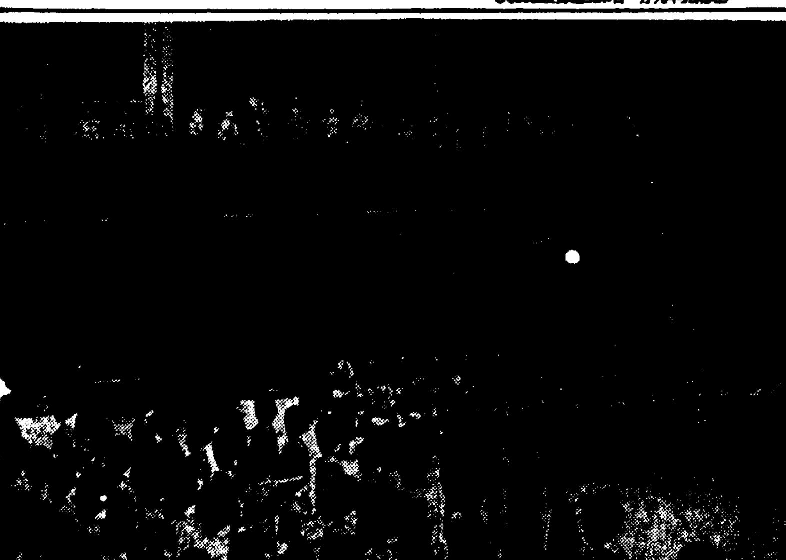
各國間合意下에 平和機構創設

汎米會議招請狀內容을 發表

會議아주開催確實

【와싱톤十五日發同盟】 루스벨트大統領은 米國大統領의 平和機構樹立目的으로써 中南米諸國政府를 全部招請하는 汎米會議를 招集하기로 決定하고 去一月三十日附書翰으로 알젠틴大統領오르스틴氏以下 各國元首에 右會議의 招請狀을 發하였는데 右招請狀은 十五日午後九時 白亞館으로부터 發表되었다 米國大統領이 이러한 會議招集에 있어서 通常의 外交機關을 經由치안코 直接 各國元首에 招請書를 보낸것은 全혀 前例없는 事例이다 如何히 會議의 重要를 重要視하고 있는가를 窺知할수있다 루스벨트大統領의 書翰內容은 如左하다

南米大陸永年의 戰爭 그란차코問題가 兩國政府의 眞摯한 努力에 依하야 和平協定締結을 하게된것은 米國大陸平和를 爲하야 實로 慶賀에 不堪하는 바이다 余는 지금 亞米利加大陸各國元首가 各自代表를 任命하고 一堂에 會合하야 相互會議하는 時期가 到來하였다는것을 提唱하는 바이다 各國政府는 이好機를 利用하야 將來相互間의 紛爭의 解決을 期하고 西半球의 恒久平和를 保障을 爲하야 實際的方法에 寄與하려고 생각하고있다 따라서 余는 此等의 問題를 討議하기 爲하야 汎米會議開催를 提唱하는 바인데 同會議에서는 各國政府가 現存平和機構를 再檢討하고 過去의 聯盟에 依하야 必要한 바에 따라 이에 修正을 加하는지 乃至는 又現存平和機構를 加하기 爲하야 [illegible] 諸方式을 加하야 다시 各國會議下에 平和機構를 創設하야 此等諸亞米利加大陸 諸國間의 平和確保의 方法에 附議하려 余는 各國政府에 對하야 此等方途는 勿論이 平和的解決 同時에 會議에 參加할것은 勿論 同時에 此等方途에 關하야 聯盟 其他 平和保持를 目的으로 하는 現存 又는 將來成立할 平和機構의 努力을 保障하게 될것이나 [illegible] 余는 通常外交機關을 通치안코 直接 各國元首에게 親翰을 보낸 理由를 說明하야 如左히 結論을 맺엇다 本問題가 亞米利加大陸民에게 重大한 關係가 있고 또亞米利加大陸共和國에 大統領間에 直接 親히 意見交換할必要가 있다고 思惟한 까닭이다



英國新帝殿下의 御儀 英國新帝 에드와드八世陛下 即位布告式 去二十二日 런던의 센트젬쓰宮 프라이어리코트에서 擧行되엇다 寫眞은 센트젬쓰宮殿에서의 布告式

汎米會議의 推移는 聯盟에 重大關係

聯盟當局에서 汎米會議注視

聯盟觀念離脫을 憂慮

【와싱톤十五日發同盟】 루스벨트氏의 汎米會議招集發表에 關하야 聯盟方面에서는 적지않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聯盟當局도 表面 實情를 是認하면서 「聯盟」은 世界平和維持를 爲하야 組織되고 終始 그를 爲하야 努力하여왓으니 如何한 手段을 不問하고 平和達成의 努力 米國大統領이 眞心으로 이를 支持하는바이나 따라서 來汎米會議도 勿論 贊成하는 바이다 現在 南北亞米利加諸國은 戰爭을 反對하기 爲하야 强固히 團結로써 歐洲에 對하야 勇敢한 實例를 보이고잇다하며 一部에서는 汎米會議의 成功은 南北亞米利加諸國間의 平和機構强化를 招來하야 有用할것이나 그結果는 中南米諸國의 聯盟에 對한 關心을 稀薄化하게 할念慮가 없지않다 米國은 勿論 中南米諸國도 聯盟機構로부터 離脫하여가려는 傾向이 認定되는 今日汎米會議의 推移는 聯盟의 將來에 重大關係가 있다고하지안을수없다」 라고하는 一抹의不安의 念을 가지고잇다

伊에主力部隊激戰 에軍死傷二萬名

伊軍도死傷者九百의多數

【마칼레十六日發同盟】 伊國北軍은 去十一日以來 總司令官바도리오元帥指揮下에 南方에 向하야 進擊을 開始하고 各所에 險阻한 山嶽地帶를 突破하야 伊軍主力部隊와 激戰을 展開하엿는바 十五日 새벽에 伊國軍은 俄然 不意에 猛烈한 攻擊에로 옴겨 一擧에 아노탈, 헤리곡, 베르사이, 마게마이차等을 要地를 占據하엿다 이戰鬪에 잇어서의 에國軍의 損害는 無慮 二萬人 伊軍의死者 四百名 負傷者五百名 合計九百名이라 한다

【로마十六日發電通】 마칼레南方에 進擊한 伊北軍 五個師團은 十一日以來 에치오피아國軍十方面 군의 約八萬의 大軍과 激戰을 展開 라스·물게다 將軍麾下의 約八萬의 大軍이 一擧에 있는바 十五日未明 伊軍第一、三軍團은 에軍의本據인 허리코트村 가까운 암바라담山頂의 城을 總攻하엿다 終日에 亘한 激戰後 이를 占領하엿다 이會戰에서 에軍의 死傷者는 一萬四千이라 하며 伊軍은 死者四百 負傷五百을 내엇다

伊北軍에軍本據占據

伊軍大捷確認

伊新聞宣傳省

【로마十六日發同盟】 新聞宣傳省은 十六日午後 戰況公報 第百廿五號다음에 同公報 第百廿六號를 發表하고 北部戰線에서의 伊國軍大捷을 確認하엿다 京阿總征軍總司令파트리오元帥의 報告는 如左하다

에티오피아戰線에서의 戰鬪는 二月十一日부터 展開되어 一月十五日以來 마칼레南方에서 雙方主力의 大激戰을 展開하엿다 戰鬪는 第一軍第三軍團의 勝利로 도라가 各方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고 伊國軍은 라스게탈라將軍의 頑强한 抵抗을 粉碎하고 敵의 防禦線을 殲滅하게되엇다

到處에激戰混戰 政友結局第一黨?

何黨도絕對過半數獲得不能

與黨이겨우過半數程度

【東京電話通信】 選戰은 매우 激烈하야 八百七十八名의 候補者는 全國百二十二의 選擧區에 最後의 榮冠을 獲得하고저 到處에서 激戰混戰 國民同盟 社會大衆黨 諸派 그 形勢는 混沌 今日은 劣勢하야 昨日의 優勢도 今日은 劣勢를 懸하고잇다는 狀態인바 十六日現在의 各派當落 推想은

政友會	百六十	一名
民政黨	百五十三名	
昭和會	十六名	
國民同盟	十一名	
社會大衆黨	七名	
諸派	一名	

中立	五名	
合計	三百五十二名	

으로서 落落을 相爭하고잇는者는

政友會	九十三名
民政黨	八十名
昭和會	十三名
國同	八名
社大黨	九名
諸派	三名
中立	二十一名
合計	二百二十七名

인바 그中에 얼마만한 比率로 當選시킬수잇는냐에 依하야 어느黨派가 第一黨으로 될수잇느냐를 決定할수잇는셈인데 何如든 政民兩黨이 絕對過半數를 獲得하는것은 絕對困難타고 觀測할수잇다 그리고 當選圈內에잇는 政友 民政 昭和 國同 社大諸派候補者中 一等로 五割의 當選者를 낼수잇다면 政友四十七名 民政四十名 昭和六名 國同四名 社大四名으로되어 거기에 中立諸派에서 數名의 當選者를 獲得한다면

政友會	二百七名
民政黨	百九十三名
昭和會	二十二名
國同	十五名
社大	十一名

으로서 依然 政友會가 第一黨을 占領하야 政府支持側은 民政 昭和를 合하야 겨우 政友會를 凌駕하게되고 거기에 中立 其他政府支持派를 合하면 겨우過半數의 程度를 獲得하게되므로 如左한 結果로 되면 政局은 依然不安하야 自然 强硬한 朗壞等이 惹起하야 肅正選擧의 모토는 無意味하게되지안흘가하고 憂慮하는 傾向이다

極東에對한諸條約의 原則을宣明强調

米國務次官의演說

【시카고十五日發同盟】 國務次官필립스氏는 十五日 시카고外交關係評議會席上 米國의 外交政策을 論하고 特히 極東問題에 言及하야 中國에對한 各國의 모든 現存條約의 尊重, 門戶開放, 機會均等의 原則을 宣明强調하엿다 필립스次官의 演說要旨는 如左

極東에서는 現在 革命的 及 進化的으로 展開하고잇다 米國政府의 政策은 어데까지든지 精神 同地方에 關係되는 條約의 原則을 지키는 것이다 米國은 同地方의 一切의 國際的權利와 義務를 保持하고 擁護하고 現存한 諸條約과 國際法의 原則에 依하야 國際問題의 平和的解決을 期하는것이다 米國政府自身은 그러나 米國政府로서는 어데까지든지 이原則을 堅持한다 어떤 一國이 又는 一地域에 關한것을 不問하고 이것을 放棄하는것은 決코 賢明한 處置가 아니며 米國政府는 斷然 容認치 안는바이다 그래서 依하야 서게되는 諸原則은 極東에 완전하며 또 發行되면 極東地方의 正義와 平和를 確保에 寄與하는바 多大한것을 確信한다 中國의 門戶開放, 機會均等의 原則은 米國政府가 벌서부터 主張하는바이나 最近 자주 同原則이 無視되는 事件이 惹起하는것은 遺憾이다

米國政府는 國際的行動에 關하여서도 또 如何한 國家에 對하여서도 政策을 强制하는것은 아니다 한 國家에 對하야서도 侵畧的行動에 出함 實例를 주는것은 아니다

巨大統領의 汎米 特別會議招請에 對하야 米國外交使節을 通하야 各國政府의 意向을 打診시킨結果 各國政府도 衷心으로 이를 歡迎한다는 回答을 하엿다 따라서 루스벨트大統領은 中南米 二十個國元首에게 親翰의 形式으로 中南米諸國政府에 各各 招請狀을 發送하기로 手續을 取하엿다 國務省으로서의 式典은 오는 月 이미 招請狀을 發送하엿다 國務省으로서는 招請狀을 受한 各國政府는 勿論 贊意를 表하고 聯盟理事會로부터 脫退치안흔 各國이 何如튼 이 會議에 參加하리라는 見地에서 觀測하고잇으나 그런데 各國政府로부터 回答이 오는대로 會議開催 時日을 決定할 것이라 한다

政友百廿 民政百內外

警保局豫想

【東京電話通信】 內務省警保局에서는 全國各地의 選擧戰狀況에 關한 情報를 綜合하고 其他各方面의 情報를 綜合하고 極히 客觀的으로 본 各派當選豫想은 如左

政友	二百乃至二百二十名
民政	二百名內外
昭和會	二十名內外
國同	十名內外
無産派	十二三名
中立其他	十五名內外

政友는 從來의 地盤關係에 依하야 依然 第一黨을 占領하겟스나 過半數에 不過, 民政, 昭和會, 國同等의 非政友 聯合派에 依하야 現內閣支持派의 勝利에 도라가 總選擧結果 同時에 政局의 變動은 업으리라는 觀測을 내리고 잇다 이것은 現在 各派의 勢力關係, 選擧의 狀況等으로 보아서 어느程度 客觀的으로 正確하다고 보고잇다

國境紛爭解決은 漸進方針으로

不侵略條約等은時期尙早

外務當局方針決定

【東京電話通信】 廣田外相은 蘇滿國境紛爭을 解決하고저 먼저 金廠溝事件에 關하야 共同調査委員會設置를 提議하고 平和的方針을 堅持하야 國境紛爭을 解決하고 滿蘇間의 國交調整에 努力하려 스타하노프運動等에 對하야 不拘하고 蘇聯側은 强化를 圖하는 一方 國際不安을 强調하야 國民의 統制를 强化하고저 平和工作에는 자못 消極的 態度를 取하고 廣田外相의 提唱에 對하여서도 第三國人의 介入을 固執하고 잇어 이는 日本의 反對를 豫期하고 如斯한 平和工作을 膺懲하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信憑되어 日本當局은 蘇聯側의 眞意를 看取하고 蘇滿國境紛爭의 解決에 對하야 現實에 있어 一層 强化할 方針을 決定하고 있다 日、滿兩當局은 이것을 宣布하고있다 日、滿兩當局의 意向은 그것의 否定에도 不拘하고 執拗하게 蘇聯側의 對日態度에는 何等 改善된자최가 없으므로 廣田外相도 不侵略條約의 締結等은 時期尙早이며 依然 懸案解決의 漸進方針을 取하기로 決定한 模樣이다

蘇聯內着陸 日本人放免

蘇聯政府發表

【모스크바十六日發電通】 一月九日 滿洲東部國境 보데코보附近의 國境을 越境하야 蘇聯領內에 不時着한 日本軍用機에 對하여서는 그後 日本當局으로부터 蘇聯政府에 對하야 事情을 說明하고 放免을 交涉中이든바 모스크바 政府는 十六日 右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去一月九日 보데코보近傍의 國境線을 越境하야 蘇聯領內에 着陸한 日本軍用機及 搭乘者二名은 其後 蘇聯官憲에게 抑留中이든바 蘇聯政府는 日本政府와의 協定에 依하야 去二月十二日 이미 이를 放免하엿다

消息

▲申允鉉氏(京畿道江華郡守)本紙

西總選擧 흔만성말

兩派抗爭激烈 死傷者卅七名

左翼派가斷然優勢

【마드리드十六日發同盟】 十六日施行된 西班牙議會總選擧의 結果 判明된바에 依하면 首都마드리드市는 左翼黨의 斷然優勢로 되엇고 西班牙全國에 亘하야 兩派의 抗爭으로 暴行되어 死者五名 負傷者三十二名을 내엇다고 傳한다

【마드리드十六日發電通】 十六日 施行된 議會總選擧로서 約二百萬의 投票中 第一回 開票의 結果 바르셀로나市는 六千 票의 優勢로 左翼派의 勝利로 도라갓는데 北西部가 모두 左翼諸派의 手中으로도라가리라고 報道되어 잇다

土耳其外相 英外相과懇談

【제네바十五日發同盟】 土耳其外相 알라스氏는 歸國의 途 十五日 英國에서 外相 이든氏와 會見하고 英、土協約問題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알데니外相은 夫人同伴으로 十六日 제네바를 出發하야 伊國은 프레에 對하야 制裁에 關하야 巴里에 赴하야 이는 伊國의 對하야 歐洲가 取할 今後의 態度를 決定하려고 政府當局은 正式으로 否定하엿다

今日夕刊八面

橫說竪說

▼對立大統領의 ... [illegible] ▼米國이 汎米會議를 開하야 米洲의 平和를 保障하려는 것은 [illegible] 國際聯盟의 權威 [illegible] ▼그러면서도 世界共和의 唱導者로서 米國은 [illegible] ▼米國으로서는 結局 「米洲는 米洲人의 米洲」라고 하는 몬로主義의 再現에 不過하다 ▼[illegible] 世界의 平和를 바라보면서 自己만 保障하고 나아가는 것은 [illegible] 米國 今後의 動向은 주의할 것이다.

▲交換에 對한 人事大會 ▲李泰鉉氏(京畿道江華郡守)同上 ▲任哲鎬氏(龜十三年十四日) 南扶餘郡世道面東寺里自宅에서 逝去

○

복어알에 또 다시 一家가 慘禍。못 먹을것을 먹는일도 따하지만, 먹지 아니치 않게된 그일이 더욱더 딱한일。

약은좋기먹고듯잘에침기

그러므로 전문가의렬상처로에도 출청한 을맛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끄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괴롭이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석약을방지하고밤잠을잘자게만들어줍니다。

무서운기절령의 류행기가왓슴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감기·폐염 홍역·백일해들 미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백일해·홍역

거칭병중에도 가장 고통이심한 역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 구미국에서 유명한 「지미草新」의 대표적제약으로 정파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허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될으로 매우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청분파마취성분이 조금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입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은기후와토질의관계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 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여가 업시잘듯고 장을잘주무시게만들어준다고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위험한기침병을 예방하여주며 잠을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중서의악화를방지하며 전쾌를빨오게합니다。

五〇瓦…四十錢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チミツシン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鎌田益元三郞商店

눈소란 春雪! 추위는없을듯해

【인천】 봄이른날세는 봄해로걸쳐있는 불연속선(不連續線)으로인한것으로 중부조선에한 눈이온것으로 더욱경 아침에도 은세계를 이루었다.

이상은 일본해(日本海)로부터 서남조선과 중부조선방면에더욱만히왔다는바 금조六시현재까지 적설은 다음과같다.

▲京城三CM ▲平壤三CM ▲海州四CM ▲元山七CM ▲仁川五CM

오전중에 처처에 눈은개이고 북쪽은 오후에까지 올모양으로 이눈이 개이면 몽고방면의고기압이 엄습하야 일기는 서북풍(西北風)이 불어 좀내릴것이나 추위는없을듯하다한다.

定平農組言渡公判 最高에七年懲役

六十三名中六名만執行猶豫 今日、咸興地方法院에서

【함흥지국전화】 정평농민조합사건의 언도공판은 十七일 오전十一시十분 함흥지방법원에서 미전(米田)재판장의 정검사입회 미전주심으로 열리었는데 다음과같이 언도하였다.

	求刑	言渡
韓永允( )	七年	七年
李召浙( )	七年	七年
崔學烈( )	六年	六年
韓泰甲( )	五年	五年
韓承謙( )	四年	四年
李用燮( )	四年	四年(三百日通算)
韓東燮( )	四年	三年半
韓泰益( )	四年	三年半
全泰鉉( )	四年	三年半
金暻模( )	四年	四年
金鳳淵( )	三年	三年
李春京( )	三年	三年(四十日通算)
李華林( )	三年	三年
韓興國( )	三年	三年
李心極( )	三年	二年半
張漢源( )	三年	三年
韓秀鍊( )	二年半	二年半
韓鳳韶( )	二年半(三百日通算)	二年半
韓泰鏞( )	二年半	二年半
韓承源( )	二年半	二年半
韓國模( )	二年半	二年半
姜信奎( )	二年半	二年半
李海源( )	二年半	二年半
韓桂乙( )	二年	二年
韓相燁( )	二年	二年
金光洙( )	二年	二年
車南植( )	二年	二年
元鳳吉( )	二年	二年
徐洪範( )	二年	二年半
金東華( )	二年	二年半
金昌燮( )	二年	二年
金鍾烈( )	二年	二年
李道林( )	二年	一年半
李嘉燮( )	二年	一年半
全敏三( )	二年	一年半
李成俊( )	二年	一年半
張鳳淳( )	二年	二年
韓泰國( )	二年	二年
韓崙奎( )	二年	一年半
李宗錫( )	二年	二年
韓服錫( )	二年	二年
韓一相( )	二年	二年
韓鳳松( )	二年	一年半
李仁春( )	二年	二年
韓永澤( )	二年	一年半
韓東植( )	二年	二年
金東俊( )	二年	二年
高宗元( )	二年	二年
千士玄( )	二年	二年
鄭平均( )	二年	二年
申榮秀( )	二年	二年
韓成龍( )	二年	二年
文鳳良(女)( )	二年	二年(七十日通算)
金相文( )	二年	一年半
李壽得( )	二年	一年半
全榮一( )	一年半	一年半
韓七福( )	一年半	一年半
韓昌孝( )	一年半	一年半
韓會允( )	一年半	一年半
李東燁( )	一年半	一年半
元仁滉( )	一年半	一年半
金龍濟( )	一年半	一年半(二百日通算)

(未決通算은人인은 被告들은各 部一百四十日通算)

四年執猶、全榮一、韓七福、韓會允、韓昌孝、元仁滉、金龍濟

隕命時遺言으로 卅三萬圓또寄附

自己가設立한學校에最後喜捨 悲喜交集의世醫專校

세브란스 慈父

【세브란스의 대표적 인물인 에비슨博士】 함께 태평양을 건너서 새 봄빛을 타고서 건너온 반가운 소식이 남대문밖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전해왔다. 그의 이름을 빛내어 하는 이 學校에 최후로 그의재산을 정리하야 그중에서 약三十三만원을 세브란스에 기부하였다는 소식이다. 세브란스박사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여러차례 거액을 기부하였고 또한 병원의 확장과 학교의 기초를 세워놓은 분이다. 그는 지난 一월十六일 당시 유행하던 병으로 별세하였는데 미국의 재계에서 원로인 관계로 작고하기 전 유언으로 학교에 전달되었다. ◇사진은 작고한 「짜벌」세브란스박사

"最後의援助를 誠心感謝한다"

世專校長 吳兢善博士談

이러한 소식을 듣고 동교 교장 오긍선박사는 말하되 "세브란스박사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세브란스재단에 二만五천불이 있으므로 합하면 十二만五천불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런기회를 당할수록 우리의 일을 우리가 좀더 만들지 못하고 외지에 있는 유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것이 실로 고마운일이외다. 이돈은 오는 때로 쓰게 될것이 아니고 세울것이니 어떠한 것을 세울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안흔 일입니다"라고 한다.

羅南附近에서 急行車脫線

急停車로 顚覆은 僅免 乘客無事、線路大破

작十六일 오후二시四十분 웅기를 출발한 경성행 급행열차 제五〇八열차가 승객 一백四十九명을 태우고 동일 오후 十시二十五분경 나남역(羅南驛) 북방 약三키로의 지점을 질주하는중 돌연히 기관차를 비롯하야 연결된 두어 차량이 탈선되엇다. 급정거를하고 겨우 전복을 면하고 승객과 승무원은 다행이 무사하게되엇으나 탈선에의한 선로피해는 상당히 만코 복구될 가망이 없고 승객은 전부 나남까지 자동차로 수송하야 동지에서 임시열차를 특발시켯다. 탈선원인은 철도국에서 목하 정진중이며 기타는 철도국의 북조선철도관리국에 조회중이나 경성 성진간의 철도전화가 눈으로 불통된 까닭으로 상세한것은 아직 불명하다고한다.

第一次太勞 李舟河出獄

【원산】 제一차 태평양 적색노조(第一次太平洋赤色勞組)사건의 이주하(李舟河)(三〇)는 그사이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五년징역에 복역중이든바 작十六일 만기 출옥이되어 동일 오후三시 원산착 남행차로 귀향하야 부내신흥동(新興洞)자택에서 정양중이라고한다.

되는 부끄러움이 이거액을 받어서 기뻐함보다도 앞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더욱더 있는 힘을 기우리고 정성을 바쳐야할 책임을 느끼게하는동시에 특히 동창여러분에게 느낌이 한층무거울것으로압니다. 지금 엑스광선 설비로 一만二천원의 예산을 세웠고 주방과세탁실로 이층건물을 二만二천원에 엽마전에 낙찰시켰으므로 우리의내용은 착착로 배진할뿐입니다"라고 말한다.

疾走하든轢人 折脚코逃走

◇無責任한自動車

종로네거리에서 사람을 치여 두다리를 부러트리고 다라난 자동차가 있엇다. 피해자는 부내 장교정(長橋町)二七一 유진갑(兪鎭甲)(二〇)으로서 十六일밤 十一시二十五분 종로三정목 十二번지앞을 지나갈 지음 동쪽으로부터 자동차 一대가 달려들어 치어노코 그대로 다라나 버렷다. 피해자는 두다리가 모두 관절에 중상을 입고 쓸어젓는데 때가 부러진듯 하다고하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한결과 자동차는 시내모자동차회사소유 자가용 경(京)二二九호라고 하는데 사고를 이르키고 그대로 다라나 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는 사고의 원인이 어디엇든 고약한 일이라하야 신중히 조사한후 처치방법을 강구할터이라고 한다.

漢江이를풀리자 妙齡女最初投身

京町路上엔飢餓屍

새봄을 등지고 저세상의 길을 떠난 두가지사건。

◇……지난 十四일 고양군 룡강면 동막상리(高陽郡 龍江面 東幕上里)四七五 한강연안에는 三十전후의 젊은여자시체가 표착되엇다。 그런데 그여자의 주소성명은 알수가없다하며 그죽은 원인도 알수없으나 그의신발이 그근처 초라한물이 떨물짓고저 뛰어노흔 어름구멍에 노힌것을 보아서 자살한것이 분명하다한다。

◇……또 하나는 시내 경정(京町)三十二번지 풍국제분회사(豐國製粉會社)뒤 콩크리트바닥우에는 五十三、四세되여보이는 남자가 죽어잇엇다한다。 그를 검시한결과 굶어죽은것으로 판명되엇다한다。

朝運新社員採用

조선운송(朝鮮運送)의 금년도 신사원채용은 지난번 일본내지와 조선에서 전형시험을마친결과 입본내지에서 五十四명 조선에서 四十명합계九十四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엿다。

「育兒를」脫出 窃盜行脚의少年

수세군 육아홈을 탈출하야 각처로 절도행각을 하든 소년二명을 종로경찰서에서 체포하엿다。

그들은 송귀남(宋貴男)(一七)과 이광범(李光範)(一七)으로서 二주일전에 육아홈을 도망처나와가지고 각처에서 부지런히 남의집을 드나들며 물건을 훔처내다가 발각된것인데 그들이 육아홈을 도망질친까닭은 "배가고파서 나왔노라"고한다。

이에 대하야 육아홈의 말을들으면 규측생활에 실증이나서 각금도망가는 아이가잇다 그러나 배고픈정도로 먹이는일은없으며 이번에 도망친 송귀남은 벌서세번째 도망이나고 제각에 다라난것이라고한다。

天氣豫報

小低氣壓은 黃海江原道近海及北海道의 南西海上에잇어 不連續線을伴하고 又石垣島의 南과 九州의 南西海上에도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蒙古에서 滿洲朝鮮에 퍼지고 잇다。 滿洲는 晴、朝鮮은 曇、中部地方에는 降雪이잇다。 日本內地는 흐리다。

今夜 曇 明日은北西風、晴、추어진다。

昨日 最高 零下九度二 最低 零下零度三

今日正午溫度 零下零度二

九歲兒絞殺割腹

生肝끄내먹은癩病患者 軍威郡下에서發生

【대구지국전화】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는 야심의 포벌로 남의 어린아이를 죽인 악착한사실。 경북 군위군 동부동(軍威郡 東部洞)五백三十六번지 이상수(李尙秀)(三〇)는 문둥병에 걸려서 고로 목을 매서죽이고 낫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먹엇다한다。 그리하야 그범인을 十七일오전一시에 군위경찰서원에게 체포되야 목하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十六일오후七시三十분경 그옆집에 사는 전해순(全海順)이라는 녀자가 더리고온 아들 용이(龍伊)(九)라는 어린 아이를 가기집변소에 다리고가서 허리띠로 목을 매서죽이고

土木疑獄最終公判

"談合은詐欺罪構成"

今日、高等法院에서上告棄却 巨頭十七名有罪決定

소화七년이래 조선토목계에 일대충동을 이르키엇든 토목담합(土木談合)사건의 집대우길、陣內茂吉등 十七명에 관한사기사건의 상고언도공판은 十七일 오전十一시四十분 고등법원형사부 법정에서 산태(山澤)검사의 관려아래 개정되엇다。

이날법정에는 十七명의 피고가전부 출정하엿고 재계의 거부八十여명이 방청으로 대만원을 이루엇다。

개정벽두 히루(日高)재판장은 전피고를 앞에 불러세우고 본건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상고기각을 하게되어 이로써 담합사건은 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유죄로되어 一심판결과 같이 확정되엇다。

기가이유는 원판결에잇어서 수속상 아무런 위법이 없고 담합이라는 자체가 사기의 성질과 같은것이니 이는 사기죄로 논단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懲役一年=▲陣內茂吉(五○)▲同平田龜二(六○)▲同青木鎭三郞(七○)▲同住吉勘次(六○)▲同小野一三(六○)▲同細內網三(三○)

◇懲役八月=▲鹿田正雄=▲羽山作太郎懲役三月執猶二年▲濱本佐之助懲役八月執猶四年▲西川昇懲役二月執猶二年▲藪田熊一懲役三月執猶三年▲米村辰平懲役三月執猶三年▲竹內政知懲役三月執猶四年▲後藤虎雄懲役四月執猶五年▲林山賀次郞懲役二月執猶四年▲渡邊定一郞懲役八月執猶五年▲齋井初太郞懲役八月執猶五年

이날은 기보한바어니와 동사업을 하야 자기고향인 수원서도 지난十四일 오후 二시반에 유지제씨의 출영으로 수원에 도착하야 보한수일동안 신풍리 수원에 고향 사택에 유학중이다。

保釋은取消 體刑者收監

今日召喚狀을發付

토목담합사건의 최후판결 언도로 전피고들이 유죄로 확정되엇다 함과 같이 피고들 중 陣內茂吉이 소화八년十二월 중순경에 소환장을 발부하얏다한다。 이와같은 판결을 받은 피고들의 석방되어 잇엇으므로 이번 유죄확정판결로 인하야 고등법원 검사국에서는 산태(山澤)검사의 명의로 소환장 人의 법정 十七명은 전부 서대문 형무소에 수용하게될것이라고 한다。 징역 집행되어 있는 피고는 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는 형이 됫으므로

飛行校教官 李起煥氏歸鄕

【수원】 동경에 있는 비행학교 동경비행학교(東京飛行學校) 교관으로잇든 이기환(李起煥)씨는 오는 三월중에 고국방문 재만동포 위문비행 在滿同胞慰問飛行을 계획중이

冬季올림픽 第11日 16日

電發헌켈트·파르텐키르헨·가르미쉬

히틀러總統과各閣僚臨場 壯嚴裡에終了!

【電通特派員發】 지난二월六日부터 十一日間 嚴肅한平和의싸움은마침내 終局을 告하야 南獨逸하마음은 다시새대로 靜寂으로돌가려고잇다。

午後四時半 各國選手는 式場스케트스타디엄의 東側廣場에集合 午後五時十五分入場式과 同樣으로 希臘을 先頭로 알파베트順으로整列 旗手를先頭로 스타디엄에 入場하니 올림픽組織委員會幹事長쿠흠트男等으로부터 各各賞品을授與하고이어서 組織委員會會長 리타프호할트博士及 루흠트男의兩氏가 各國旗手에 가까히 가서各國旗에 第四回冬季올림픽 大會參加記念리본을 매어주고最後로올림픽大會會長과츠르的對의 熱烈한 語調로 閉會의辭를述하자 禮砲는 殷殷하게울리어 全世界의 青春의피를 한칭더 끓게하엿다。

이날 스키하우스의 貴賓室에는 히틀러總統을 비롯하야 各閣僚威儀를갖으런니하야 席에앉고 올림픽의 聖火는 꺼지고 五輪의올림픽旗는 내어젓다。十萬의 觀衆은 期하지안케歡聲을올리엇다。이리하야 選手一同은 勇壯한올림픽行進曲에 步調를마치어 退場。

南獨逸의밤은 드디어 어둠에잠가니 이에歷史的大會는 完全히終幕을告하엿다。

올림픽大會는 十六日의 아이스하키 決勝을最後로 閉幕하엿는데 大會成績은 大會本部로다음과같이 正式으로發表되엇다。

諾威는 七種目의選手權을 獲得하야 優勝하고獨逸은 三種目、瑞典二種目、分蘭、墺太利、英國、米國、瑞西各一種目優勝하엿으며 日本은一種目도 獲得하지못하고 總得點은 三點으로써 第十五位가되엇다。

◇總得點表

第一位	諾威	80點
第二位	獨逸	43點
第三位	分蘭	41點
第四位	瑞典	40點
第五位	米國	31點5
第六位	墺太利	25點5
第七位	英吉利	22點
第八位	瑞西	19點
第九位	加奈陀	9點
第十位	洪牙利、체코슬로바키아 各	7點
第十二位	白耳義	5點
第十三位	佛蘭西、和蘭 各	4點
第十五位	日本、伊太利 各	3點
第十七位	波蘭	2點

高麗陸聯理事會

高麗陸上競技聯盟에서는 來二十日 午後四時三十分 朝鮮體育內同聯盟事務所에서 理事會를 열터인데 協議事項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一、第六回京永間新郊驛走大會準備에 關한件
一、其他

總得點으로 諾威優勝

日本은第十五位

【電通特派員發】 第四回冬季올

東京出征人事次 華國代表陣來社

今夏의 伯林올림픽 拳鬪制覇를目標로 來二十五、七兩日 東京日比谷에열릴 日本豫選에 出場할朝鮮代表拳鬪陣

金亨中(플라이)、洪在浩(뺀탐)、李龍辰(페더)、崔龍德(라이트)

李奎煥(웰터)

五選手는 十七日 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車로 떠날터인데 宿所는 東京明治神宮外苑 日本青年館이오 一行의引率者는 尹鎭惠、成義慶、李熙潭三氏라고 한다。

寫眞은 人事次 十六日 本社를 來訪한一行

神如効藥 四時常備의胃病靈藥 太田胃散 東京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서發賣

三菱鉛筆 學校先生님이조아하시는 國産의王者 眞崎大王堂鉛筆研究所

東都에서 業을 畢하고 流行歌研鑽하기 有年 新人 李圭南 流行歌 고향 흔신세 (四三九五)

好職業

皮膚泌尿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恩給 鄭商會

寫眞○書 趣味 外國寫眞 上記三冊二圓 ○○○○ 愛好家募集

タ外科 X光線 [illegible]

生徒募集 電信科 約四十名 朝鮮總督府鐵道局

營業品目 處方調劑 醫療藥品 新藥各種 有名賣藥 化粧品各種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洋藥과器械 京城鍾路四丁目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好職業 男女年齡不問 [illegible] 大阪 [illegible] 博文社

小兒肝氣散 [illegible]

志らが赤毛染 るり羽 特徵 우리들女性의 [illegible] 부수수하고 지르르흐르는 漆黑의髮……

朝鮮唯一 養成 三週年特典生募集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物理醫療士 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 院長東京電氣醫學校創始學長

平安南道立 平壤醫院 看護婦生徒募集

福 모나―루 MONAL FUKU 福모나―루特徵 一、効力迅速하야 苦痛을緩解하며 一、生安靜을與하야 무害하며 同類의 一、注射回數와用量을 顯著히減하며 間作用의持續이 長時 一、抑制할수잇고 治療中 禁斷症狀의 發現이 人他方法의 安眠、食慾增進、體力의增 加榮養健康을 顯著히恢復하야 愉快自然裡에 마침내 離藥할수잇는것입니다 製造元 大阪市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모루히네 中毒患者의 福音

本社學藝部主催

第三回全朝鮮男女專門學校 卒業生大懇親會

일터三千里에새일꾼 登程初의同席交驩

—순서의진행따라흥취는점입가경

第二日 辯河笑海의男子部

본사학예부주최의 제三회 전조선남녀전문학교 졸업생대회간친회의 제二일인 남자부는 재작十五일밤에 본사 강당에서 백七十여명의 참가로성황리에 개최되엇습니다. 정각전부터 三三五五로 장내를향하야 들어오는 그들의발소리에도 이날의 기쁨에 알맞는해조(諧調)가 잇엇거니와 검은교복이 죽늘어앉은 그우에 본사기가 중중이 우색으로 장식되어 엄숙한중에도 화려함이잇고 명랑한우에 더욱 기쁨이넘치어 이땅의 새요사람을 맞이하야 하로밤 서로 즐기게되는 자리로서는 모든준비에 빠짐이없엇습니다. 다음의순서대로 진행됨을 따라 흥취는 더욱가경으로 들어가 밤깊은줄을 모르다가 十一시반에 원만히 폐회를하엿습니다.

第一部

先輩의懇曲한付託 新人들의快氣焰

意味深長한祝辭와感想談

예정인 六시반보다 十五분늦게 개회를 선언하자 장내는 숙연한 기분에 싸인듯하엿습니다. 본사 편집국장 설의식씨의 개회사가잇고 뒤이어 이화전문부교장 김활란씨와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오긍선씨의 축사가 잇은후 보성전문학교생 이광진군의 답사가잇고 각학교에서 한사람씩의 졸업감상담이잇어 뜻깊은 이모임의 가장 중요한 제一부는 정중하게끝낫습니다.

開會辭 本社編輯局長 薛義植氏

해마다 열리는 모임이나 적은 감흥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야 이모임을 베풀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잇으니 즉 하나는 여러분이 지식과 역량을 닦고 길러가지고 졸업의 영예를 얻게 되엇다는 점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새일꾼이되어 실사회의 일터로 나와 우리의 새동무가되게 되엇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전정의 다복함을 축하 하야 마지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금 듯습니다—「이땅에는 일터가 없다」는 말을! 이말을 드를때에 우리는 적지안흔 슬픔을 느끼어 마지안습니다. 허나— 이말은 일견하야 그럴듯하면서도 실상은그러치 안흔것이니 즉 여러분이 새일꾼이되어 어떻을 위하야 일할 점에 잇는일터에서 일하는것이일꾼이 아니라 없는일터를 만들어●서●일하는것이 참된일꾼이 아니겟습니까! 혹인 「니—체」는 「역사의 인생은 뒤푸리다」라고 하는 말을 철저히 배격하야 「부생의철학」을 설한바잇엇스니와 여러분도 일터가없다는말을 하기전에 먼저 봄소나서서 새일터를만들어「부생의일꾼」이되기를 기약하고 힘써 합시다。아니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한 투쟁의일꾼이 되러나는것을 의시하지 안흐므로써 여러분을환영하는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고향은다를지나 조선의 청년이라는점에서 달른배없고 배운학과는 달블지나 조선여하생이라는 점에서 입치합니다。가는곳 배운학문이 달르다 하드라도 조선의 새일꾼인것이니 어찌환영하지 안켓습니까。 분야는달으나 여러분이 싸흐는 건축은 하나입니다。 협심합력하야 우리의 이큰 건축을위하야 나아가기를바라서 마지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간소하나마 이 간친회를 열어 여러분의앞길을복비는것이니 부대 건강하소서 꾸꿋하소서。그러고 오늘 하로의 이밤을 유쾌하게 질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答辭 普成專門 李光眞君

사회하시는 분으로부터 답사를 하라하시니 이는 여러분의 공천에의한것이어니고 순연히 개인적인 말슴인것을 말슴드려야하겟습니다. 제가답사를 드리게되니 우리는 먼저 이조흔모임을 베풀어주신동아일보사에 다시없는 감사를드려야 하겟습니다. 우리의 학생생활이라는것은 그것이 학생생활이라고하야 우리조선사회의 일반서의 생활과독립하야 별천지를 이루고 잇다고는 할수없읍니다. 우리에도 만흔감속을밧으며 곤란을 겪어가며 오늘까지왓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이사회의현편을모르겟습니까. 비록 우리의 이형편에 대한태도는 달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무기인 과학적비판력을 필요로하고 잇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암흑한혼란에서 재출발곳을 알지못하며 어데이고 잇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식층의 태도는 더욱 걱정되는바 한휴올 보는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자신을 무시하고 잇습니다. 세계의불안 동요를 받자고 새길을 찾으랴는 한판의대항도 없읍니다. 오직 그것으로부터「도피(逃避)」가 잇을따름인듯합니다. 그러나 금년봄 파리의 「문화옹호작가대회」를 여러분은 아시겟지요 문화의 옹호—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식층의 임무이고 직책이 아니겟습니까. —이 오늘밤의회합은 우리지식층의지위를 정당하게 인식시키는조흔기회가 될줄아는바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의 축하, 환영, 격려의말슴을듣어 기쁨과 감사에넘처잇읍니다. 오직 감사하는는 한말슴으로 저의변변치못한 답사를 끝막으려합니다.

來賓祝辭

開拓的鬪士되라 梨專副校長 金活蘭氏

어제저녁에도 출석하야 만흔감명을 얻엇섯는데 금야에도 출석하야 여러분앞에서한마디말슴을 드리게되니 다시없이 기쁩니다。

먼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땅의청년으로서 졸업을받어가며 十五개성상을 노력분투한결과 오늘의영예를 얻게된것을 축복하야 마지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귀한 기회를 가지게되엇다는것을축하하는바입니다。 물론 여러분가운데에는 순조로운 분도 잇엇겟지만 아마 괴로움을 겪어가며 학업을 마친분도만흘것입니다。그러나 졸업의 날을 앞에 마지하는 여러분이니 어찌 정거하지안켓습니까。또한 우리는 여러분앞에 전개되어잇는 만흔기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다른 조흔 환경에 잇는나라 청년들과달르니 여러분은위인의 전기같은것을 보서서 범은 안계를 가르시고 또 인격을 가다드어서 모든곤난、모든 역경을 이겨나아가시기를 바라서 마지안습니다。참으로 이 인격이라는것은 우리의 큰자본이 여러분— 부디 인격수양하러 쓰심시요。그러나 또한 의용과 지조를가진 투사가되십시요。의용의 투사—생명、피、근육、시간을 희생하야도 오히려 꾸꿋한、최후까지 활진하야 마지안는「개척자적 투사가 되어주십시요, 아니여러분은 그러한 투사가되실것이니 이어찌 반가운일이아니겟습니까。여러분— 귀한 또 복만흔신청년들! 우리는그대들을바라고 밋고잇을라합니다。

네목슴네가해라 世專校長 吳兢善氏

아까 설편집국장과 김활란 두분의 말슴을 듣고나니 퍽이나 만흔 감명을 언게됩니다。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겟지요。—참으로 여러분의 오늘밤의 이모임은 다시없이 의의잇는것입니다。여러분、행여나 오늘밤의 이감명깊은 말슴들을 잊지마십시요。—여러분가운데에는 언제한번 목사들의 말삼을 들을일이 잇슬것입니다。그때에 그들은 아마 언제나 「라사말지어다」라고 할것입니다。우리의 사회가 이갈이순조롭지못하다 하드라도 언제나 그러서갈은 의지를 가지고 꼿꼿하게 나아가십시다。활아보건대 북으로남으로 만흔 우리동포가 살길을찾어 떠나고잇습니다。그러나여러분들은 관심마십시요。나는 우선 이한말로 여러분의 거룩한출발을 축복하는 동시에 또한 여러분을 맞어드리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한마디 말이없을수없으니 그것은 즉「제일은제가하여라」하는말입니다。자긔의 책임은제가 하여라하는말입니다。흔히들「모세」를 「나폴레온」을 말하나 그러나 내 역사를 살펴보건대 아장람의 모세、천사람의 나폴레온이 되는분을 보지못하엿습니다。자긔 판에는 영웅지사라 처하는분은 만하엿고 또잇으나 그러나 이들은 어이하리요 그들은 모다 개인적으로만 그러케 생각하고 잇엇슬뿐이엇습니다 나는 이에 여러분들에게 다만 한사람이라도 조흐니 참된 나폴레온 참된 모세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안습니다。그러나 나는 그것은 어렵습니다。그러니 나는 오직「제일은제가해라」하고 부르짓고 십으며 또한우리들은그러한「제일은제가하는분」을요구하야 마지안습니다 그러한사람이 만흘때에는 우리의사회는빛날것입니다。끝으로나는 여러분들의 전도가양양하기를 바라며 이간단한축사를마치려합니다。

卒業感想談

高商金商衡 군이 씩씩하게걸어나왓으니 만장은 오직숙연할따름! 군은 먼저 이간친회의 취지에선폭의 찬의를 표한 다음 지난날의 학창생활에 만족을느끼지못하얏던것은 오히려 모르는것과 공꾸만 더해젓다고 정신한 고백하니 만장은눈을 휘둥그러케—。「우리 경제계를 살펴보니 날하고 수며을올리며「기관도적고수도 적다. 함께 그들은 크게보는 눈을 아래로 스르르나려 맛엇습니다。

군은 선배들의노력의 자취가 예상하엿든것보다 미약하다는 것을 감파하고「그러나 우리의약한 힘이라도 사회의기대에 부(副)할수가잇다면 그러한 큰광영은 없겟다」고 결론하고 착석하얏습니다。

高工金一鎭 군은 三년동안공하의 각부문을전공하고 나오는일사람의 포부를말하다 비록 부는 우리하기는하나 만흔 책임을 힘것이행하야 조선의 공업계를위하야 활동하겟다고 다시금 동료를 향하야 말하엿습니다。

法政金善太 군이 등단하니 그의 건장한체구와 수수하게입은 두루마기가 어떤지모르게 만만하지안흔것습니다. 군은 남유달리 졸업의 환희보다도 비애가크다는 것을말하고 경관(警官)의 근자해석으로부터 무슨말을하라다가 임석경관에게 주의(注意)를 받게되나 긴장한 장내는 더한층 그도를더하야 가는것이엇습니다.

藥專許清 군은 남성적 인감상(感想)에서 지나온 十五개 성상의 학창생활을 회고하며 혼자서 나오는눈물을 참으라고 애쓰는듯. 그러나 나주엇든 소리를 다시높이어 초지(初志)의 관철에 매진 또 매진하겟다고 맹서하고 안입파행각을 침쌩고 저벅저벅거러서 자기자리로가다가 미끄러워 「리노리움」에 발징을바은 구두가 빼꼿하며 하마 너머질듯—。만장은 부지중에나오라는웃음을 뿜어죽엿습니다。

世專權享植 군은스마—트한체격을가지고 기운잇게 「헤스」타력을하엿으니 아마군이 의사인까닭보다도 투철한 기개의소이연이 아닌가 하엿습니다 군은 이때까지 배운지식이 천박하다는것을 먼저말하고 나서는언성을높이어 「헌란세상」을집타하얏습니다 군이「씩이고잇는머리는 사회가 가다리는유위의인물」이 되고자하는것으로 복잡하다는 포부를 설파하고「선배들의 뒤를 이어 길과사업을 더욱빛나게 하겟다. 그러자면귀숨이잇어야한다, 인격이잇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단을나리니 만당은 변안간에 정수리를마진것같이 아는듯 모르는듯 눈동자만 이리굴리고 저리굴리고 잇을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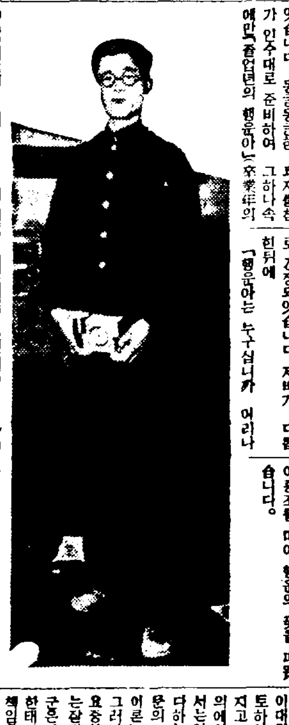
延專李榮郁 군은「학교에서 얻은모든것은 이제졸업증앞에 부고생각하니 오직공상뿐이엇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야 열변을토하기시작하엿습니다。 그것은 아마군이 말하는 「경제적압박」과 「고평」의무가자가 너무도 동정하게 군의맘과몸을 압박하엿든까닭이엇다고하며 「그러면우리는이때를 당하야 어떠케무엇을해야하나?」하는대명제(大命題)로부터 해결을도모하자고하면 어니 되겟다고 사자후(獅子吼)를하엿습니다。 군은「가치잇는인간생활」이라는것을강조하는 인도주의자인가 하엿드니 어느틈엔가「극동정세(極東情勢)」를운운하는 일대경윤가인데 모험다 타내며 무슨진흥한 말을할듯할듯하면서도 못하는것을 보니 어이나 그리해서엿든지—군은아마 말이 다。즉 신문에도 적어주엇다는말이 별로없는듯(아마군은신문을주의해서 읽지안흔 모양!)

군은아직 나이어린탓인지 무사가한태도와 언성으로「논어」를때 모러스한 인토네이숀으로진술하야 책임은 중하다는간곡한말을 하엿습니다。

中佛專金寅基 군은사회와너가아니라 우리라는합의에서 일하자는 말로 장내를 피로(?)하는듯하엿습니다。

普專金明鎬 군은오늘밤의 이대간친회에서 남유달리 염변을토하야보라고 준비도 단단히하얏다가 지고 온모양이엇스나 미리밧든주의에의하야 정정해야만 할말은해서는안된다하니 거정이요 군에하다하는것을 먼저선언하고 극히조흔의 포복절도할 「삼각형(三角形)」이론을 도도하게 전개하엿습니다。그러나 그이론이군의 창작이아니요 중하신선생의 한말이라니 군에게는 잘잘못의 아모책임은 없을듯。

協神李浩蘭 군은 현대하는 정신은 신사엇습니다。웃딴이라 태도부터가 그러타는것이아니라 신사요 말하는법이 조흔 보통의 그것이엇습니다。군은 교회공식(共食)하든 四개년간의 협신 생활을 떠나는것을 말하엿스니 그말을 들어보면 가슴을 잡을것입니다。



緊張裡에抽籤된 卒業年의幸運兒

藥專 崔毅文君

이모임에 참석한 사람 어느누구라 행운아 아님이 아니지마는 그중에서도 최고의 행운아 한사람을뽑아 기렴품을 진정하기로되엇습니다。동글동글한 파자를찹가 인수대로 준비하여 그하나속에만「졸업년의 행운아」(卒業年의幸運兒)라고 인쇄한조각을 너허가지고 한사람에 파자하나씩을집게하엿습니다。자기의 행운을기다리는 손끝들은 긴장할때로 긴장되엇습니다 재비가 다돌한뒤에「행운아는 누구십니까 어서나오시오」하니여기나「나요」하고 일어서는 준수한 청년은 약학전문학교의 최의문군이엇습니다。호기심에찬三백여개의 눈동자가 한대 솔린그곳에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서잇는 군을 위하야 축복의 환호와박수는 장내를 떠갈듯이 일어낫습니다。 이군이 기렴품탁상시계를 안고 게빼라 앞에서자 또한번박수는 일어나고 이군의 얼굴은진이흥조를 띠어 행운의 꽃을 피웟습니다。

第二部

意氣男兒의모임이라 自願登壇이續出

노래、춤、漫談、獨唱、長技도각가지

긴장하고 엄숙한태도로 장내가 고요하기 한사람도 없는듯 한속에서 감격의 제일부는 끝이 낫습니다。二三분휴식한뒤에 제二부가 시작되엇으니 이로부터는 긴장하지 안하도 조코 정숙한 태도도 필요가없어 웃고 떠들고 화기속에서 각하교가지각색의 재조가 터저 나왓습니다。

맨먼저 연전 임창한(林昌漢)군으로부터「바연폭포」가 청승스럽게 풀러나오니 재청에 박수소리가 끈날줄을 몰라 다시 흥타령을 하엿습니다。

그다음에 고상(高商)인 민병무(閔丙默)군의 만담이 잇엇는데 서툰가 아닌 민군의 만담은 상당、소질이 잇엇음으로 수엇습니다。본사에서는 제二부에 조선노래가 만흔것을 보고 축 장구를 청하엿음이 잇을것을야 미리 준비해노앗든바 아까부터 누구장구춤처달라고 고리 청해도 아무소리 없든것이 약전(藥專)의 박진형(朴鎭亨)군의 조선노래가 나오니 어디선지모르게 장구소리가 튀어나와서 장구를 제법 격잇게치고 또 미통에못이겨 어디선지 또누구하나 아모소리없이 나오더니 덩실덩실 춤을추어 세력이 한대 어우러저 한참이나 끝날줄을 몰랏습니다。

그다음 법정(法政)의 최봉하(崔鳳夏)군의 노래가락이 잇엇고 이어젓습니다。

세전(世專)의 강덕호(康德虎)군이 창부(唱夫)타령을 하는데 혼자 장구치며 노래하는데는 또다시 상좌수없엇든지 아까면이나왓든 춤이 다시뛰어들어 한참 어울어젓습니다。

연전(延專)의 김병관(金炳寬)군이 전문가부럽지안흔 독창을하엿습니다。

그다음에 불전(佛專)김한기(金漢基)군의 노래가잇고 이것으로 정하엿던 제二부의 순서는 끝이낫으나 암만해도 각각가진 장기를 이런기회에 털어노치안흐면 정히 섭섭한 생각이 날것같에서 누구던지 마음대로 자청하기를청하엿더니 사방에서 뛰어나오는 형세가 파연책남아의 할만한 기상을 보여주엇습니다。

四、그다음에 재비뽑기를 하엿으니 이제비는 좀 색다른 재비이엇습니다。 一로부터 얼마까지 수자를 적어너코 그다음에는 전혀 공제비인데 누구던지 수자인것을 뽑은 사람이 무대앞에 수고가습을제치고 승리한 군사모양으로 나올때 남어지 사람들은 그축에들지 못해서 적어이 부러워하는 양이 역력하엿습니다。 그러나 뽑혀나온 행운아들은 무엇을 하게되엇을까요

그사람들이 다시 재비를 뽑게되엇으니 이제비를 뽑은사람은 거긔적은대로 할수밧에 다른수가 없이 되엇습니다。

어리하야 첫재로부터 재비를 뽑아 실행하엿으니 닭우는소리 개소리형 무(金賀)군이 숙구정꼬 노래를햇고 이형래(李衡來)군은 참 어울한얼굴을 하게되엇으니 누구에게던지 빰을마진우에 조선절을하고오라는 명령이엇습니다。 한참동안 장내는 야단이엇습니다。그다음에는조선춤 영화변사노릇 다섯가지 울음 다섯가지웃음과 유행가가잇어 장내는 파연 절정의흥을 맛보게되엇섯습니다。

과연 제비 이 생이오 할만하고씩씩하니 할줄모르는것잇다고 못하디고 사양하거나 그만두겟다는이가 하나도없이 해내는것은 감탄하지 아니할수없엇습니다。

第三部

團體餘興種目따라 歡呼緊張의最高頂

「빰맞고 절하고」에抱腹大笑!

제이부가 끝난뒤에 잠간쉬는틈을 타서 약과(藥果)봉록이 나오고 제三부가 시작되엇습니다 三부는전혀 여흥으로 되어 터지는웃음과 한웃음에서 재미잇는 여흥이 시작되엇습니다。

一、상대자의 행용을 보고내등에 부친것을 알아내기오

二、그다음에는 귀속말 전하기내기이엇습니다

이것은 맨먼저앉인사람이 써주는글을 읽어서 귀에해가지고자기편에 귀속으로전하야 끝에사람이 어떠케되엇든지 드른말대로 발표하는것입니다 가장근사하게 알아드른편이 이기는것입니다 이전하는말은

「南山미테 靑松방울이 떡때구르르」

이라는말을 써서 네편의두목에게만 보여주엇습니다 그랫더니 네줌의끝에사람이 알아드른 말이 다음과 갈습니다

첫재줌에서는

「南山미테 靑松바윗돌」이되엇고 둘재줌에서는

「청송미테 청송방울 때문에때구」이되엇고 셋재줌에서는

「南山미테 청송방울이 떡떡떡구르르간다」가되엇고 넷재줌에서는

「천청미테 천청을 가보시오」

이와같이 전달이되엇습니다 파연 포복절도할만큼 우수웟는데 여긔대한 판단은 셋재줌이 전달이 제일 근사하게되엇음으로 그줌에서 상품을 밧게되엇습니다。

三、그다음에는 사탕、축、호떡이지남아여

大會印象點描

◇…場內에는 五色社旗가 찬란이 늘여잇고 그아래 卒業生 二百의 健兒—十實으로滿座。참짓이땅이뫼의 一大盛觀 이다。

◇…卒業生이라고는하여도아직은 校規內에서 노는 울칩이들이라 制服制帽 그대로인 學生!그러나 그썻어진帽子 구멍뚤린校服이 世事속에 싯는風霜을 나날이 일러 오늘의集會를 더욱 늙보여 준다。

◇…梨專副校長金活蘭氏 祝辭中에서「義男兒」부르짓슬때 발도듯하고 말슴들이 엥치나 석으신키가 尺餘나 늘어 六尺男兒들을 나려보기에넉넉한 威容。

◇…世專校長 吳兢善氏는 學校職員 五十分을 단五分에수러니에스넘 한마디 말슴이 「네목슴 네가해라!」。 일터로 가는 이에게 正히 寒鐵鑛의 常識講話。

◇…이番의 卒業生은 五科時大統、自由社、失望病、名醫熱、校規病、好奇心、學帽이떼사람의 모든病에 藥効如神한것은 다집두고도 都衛 氏는 醫校長이라 校醫도 自則

◇…장구가 나오다. 親心歌가 들린다— 제법 어느 科學의 한량구석、아니 어느名唱大會를 聯想、其實은 工大鳥님이 커밧오모음은 노래엿다。 어러타는 너무도 名唱 또熟練한 朝鮮舍。

◇…어느 시골사람이 바루 南大門밖에서電車를타려고기다리기를 부엿 세時間、工두工시간、停留場이 아니라 장구만 대로 지나가니까 停車를 기다리니라고。 이사람은 엄마 南大門앞이니까 電車가 머는것이 가

細時點。

×

여러게 시골사람 ●南大門人納●이란 高工生 漫談 한흉은 日誌耶、日見耶의 漫談을 耽치는抱腹絶倒。

◇…第二部 마지막으로 各校의推薦餘興을하얏다。 延專의 ×君 學校는 新村에잇것만 東京에가서 배워온노래라고 파파마를 貴업게불며、벌서 忠實한 아버지가되고 貞實한 어머니가 되구싶은모양、滿場이 拍手 또喝釆、特히 弟和部에앉은 P嬢人記者、그노래가 맘에 흡들긴못 주어라고 拍手 連發까지 흔사拍手。

【寫眞說明】上은大會의場內의上은 緊張裡에 對話한 場面은 餘興의光景。中右는 장구치는親君。中左는餘興「表情알아내기」下의下는第二部의紗校에 回報한 翻案의 一部

ClibPDF - www.fastio.com